

일대일 양육을 위한 상담 세미나 강의- 2

도은미 사모 / 1995

우리는 양육자로서 동반자의 티끌을 빼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그러나 그러한 말이 영향을 못미치는 이유가 동반자로 하여금 「당신에게 들보가 있소」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어떤 것인가?」하는 것을 가정을 빗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정을 보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개인의 성격차이, 부모와의 애정 결속의 정도, 이루지 못한 성장과제, 부모나 주위사람들을 통해 경험된 감정의 내재, 가정의 관계패턴, 시대와 환경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 두 사람의 각각의 관계패턴, 성격, 성장과정 중의 결핍 등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애정결속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정결속 관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제 결핍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태어난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시기 동안에 두 번째 성격의 발갈이가 끝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산모의 뱃 속에서 3개월 되었을 때, 이미 아이의 첫 번째 성격의 발갈이가 끝납니다.

이 애정 결속의 관계는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첫 번째 애정결속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1년쯤 되면 두 번째 애정결속의 단계를 지나가서 세살 정도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애정결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나 하면 아이가 세살이 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 회피형은 엄마한테 자기가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엄마가 반응하지 않을 때, 아이는 감정적으로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형입니다. 관계를 달가와 하지 않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형인데, 이 저항형은 전쟁을 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형입니다. 이 저항형의 사람들은 거머리같이 무슨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랑의 결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혼돈형입니다.

이 혼돈형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확 달라붙는가 하면 받아주려고 하면 확 뒤로 물러가는 아이들이 이 혼돈형의 아이들입니다. 왜 혼돈형이 되느냐 하면, 어릴 때 집안의 분위기가 다소 폭력적이라는지 구타를 많이 당했다는지 충격을 당했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혼돈형이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이에 속합니다.

넷째는 안정형입니다.

이 형태는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합니다. 앞의 세가지가 비정상적인데 비해 이 경우는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애정결속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한 부분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고 가정의 관계 패턴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두사람이 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날 때에도 굉장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양육자나 동반자가 자기 집안의 여러 패턴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대일 양육이 더욱 더 좋아지기 위해선 양육자가 자기의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기술을 조금 더 배워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